

# 野·시민단체 “복지·도시개발 등 기대 못미쳐” 쓴소리

## 박원순 민선7기 서울시정 1년 평가

노동의식 제고 성과 의문  
‘서울형 SOS 돌보미’ 정책  
중앙정부 정책과 대동소이

사상 첫 서울시장 3선 달성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오는 13일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는다.

시민단체와 정의당·녹색당 등 진보 야당은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원순 민선7기, 서울시정 1년 평가토론회’에서 박 시장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서울의 복지, 노동, 교통, 젠더·인권, 문화, 도시개발 정책들을 짚으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된 분야별 사업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현장의 요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원 권수정,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녹색당 서



11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박원순 민선7기, 서울시정 1년 평가토론회’가 개최됐다. /김현정 기자

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했다.

도시개발 분야를 총평한 이상희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박 시장의 민선 7기 슬로건인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말은 시민과 점점을 만들지 않고 거리감을 두려는 게 아닐까라는 해석을 하게 된다”며 “옥바라

지 골목에 슈퍼맨처럼 나타나 ‘서울시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거를 중단하겠다. 내가 손해배상을 당해도 좋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세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희 위원장은 “박 시장은 도시 생태계를 보존하겠다고 말하지만 빛나는 선언 뒤에 공간과 사람들이 방치된 채 남겨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세운정비사업 촉진지구에서 제조혁신 생태계를 책임져왔던 상인과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있다”며 “왜 박 시장은 생태계와 삶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대신 이들을 지워내고 여기에 전시관과 박물관을 만들어 이를 아름답게 ‘전시’만 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노동 분야 토론자로 참석한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본부장은 공무원 노동자를 대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태도를 꼬집으며 노동존중특별시를 주장하는 서울시의 이중성을 고발했다.

고동환 본부장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를 노동존중특별시라고 불러달라며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겠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런데 최근 실제 노동의식이 제고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서울시 공무원직 조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공무원들조차 노동존중 인식이 없는데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 발제자로 나선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박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서울형’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서비스원을 저격했다.

신용규 사무총장은 “서울시의 복지 정책 중에는 앞에 ‘서울형’이라는 이름만 붙었지 실제 내용은 중앙정부, 타 지방정부와 차별성 없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며 “커뮤니티 케어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서울형 SOS 돌보미’로 이름만 바꿔 진행하고 있다. 내용상 별 차이가 없어 포퓰리즘적 요소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신 사무총장은 “사회서비스원의 본래 취지는 완전히 아웃소싱(민간위탁)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막상 정책을 확인해보니 돌보미, 어린이집 등 일부 서비스만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대폭 변경됐다. 기대에 못 미쳤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임신·출산·난임 정보에 민원까지 ‘원스톱’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사이트 거주지역 등 반영 최적화 정보 제공

서울시는 임신·출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민원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사이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임신·출산정보와 모자보건서비스를 쌍방향 지원하는 웹·모바일 시스템이다.

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모자보건서비스 6종(임신준비, 임신·출산교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환급서비스, 유축기 대여, 서울아기 건강чек걸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온라인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강화해나간다는 목표다.

센터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거주지역, 임신주수를 반영한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향후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현재 지역별 인공수정, 체외수정, 난임

주사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난임지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 커뮤니티 개설 등 난임종합 지원을 위한 신규 기능도 개발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시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부터 행복한 출산이 가능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4가동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스카이라인 주소 안내사인. /서울시

## 서울 범죄예방디자인, 美 어워드서 3관왕

### 금호4가동 범죄예방 집주소 신영동 삼거리육교 등 수상

서울시는 범죄예방(생활안심) 디자인과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미국환경경험디자인협회(SEGD)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SEGDDesign Awards는 미국환경경험디자인협회 SEGDD가 1987년 이래 운영해 오고 있는 건축, 공간, 전시, 환경그래픽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상이다. /김현정 기자

시는 올해 1월 SEGDAWARD 공모전에 범죄예방(생활안심) 디자인과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접수했다. 전문 심사단의 개별심사와 그룹심사 과정을 거쳐 3월에 수상작품으로 최종 선정됐다.

전 세계 출품작 341개 중 성동구 금호4가동 일대에 입힌 범죄예방(생활안심) 디자인이 공공디자인 부문 최고상에 해당하는 실비아 해리스 어워드와 우수상에 해당하는 메리트 어워드를 받았다. 신영동삼거리육교에 적용한 ‘차하담프로젝트’는 메리트 어워드를 수상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안심이’ 앱 신고 성범죄자 현행범 검거

서울시가 밤길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안심이’ 앱이 성범죄자를 잡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일 새벽 0시 16분 은평구 관제센터로 30대 여성의 안심이 앱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관제요원은 은평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차장 앞길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귀가 중인 신고자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제센터 근무자는 가해 남성이 범행 후 통일로로 따라 연신내 방향으로 도주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한 후 현장과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했다. 관제요원은 가해 남성의 인상착의를 무전으로 알렸다.

경찰은 연신내 방향 SK주유소와 불광 제2치안센터 사이에 있던 강모 씨를 범행 10분 만인 0시 26분에 현장에서 검거했다. 시는 현행범 검거에 기여한 은평구노현석 관제요원에게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맑은 서울, 파란 하늘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위로 파란 하늘과 구름이 보이고 있다. /뉴스1

##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전략’ 수립

### 지역농업과 연계... 4가지 목표 제시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농업과 연계한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해 11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도는 공장·지속·건강·연결 4가지를 핵심가치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할 4가지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2014~2016년)에서 평균 41.3%에 이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먹거리 부족 비율을 27.5%까지 낮추는 계획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경제적 사정으로 가끔 또는 자주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도민 비율은 3.9%로 전국 평균 5.1%보다는 양호했으나 먹거리 취약계층 인구수로는 52만명으로 전국

최다 수준이다.

두 번째 목표는 공공분야의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을 현재 4000억원 수준에서 1조원까지 늘려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2017년 지역건강통계조사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아침 결식률(39.2%)을 가장 낮은 수준(33.7%)까지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31개 모든 시군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먹거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해 지역 내 먹거리 공동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는 매년 도민의 먹거리 실태와 지역농산물 이용실태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6000원으로 인상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